

전남도·나주시·켄텍, 원팀 구성 산업생태계 조성 총력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 유치 확정

글로벌기업 투자 유치·일자리 창출 전망

재생에너지·인공태양·AI 융합 혁신지대

道“에너지산업, 제2의 반도체산업 육성”



나주 인공태양 연구시설 조감도.

무한에너지 인공태양과 첨단기술 AI의 동반 성장을 이끌 1조2천억원 규모의 인공태양 연구 시설 구축 예정 부지로 나주가 선정된 가운데 전남도와 나주시, 켄텍이 원팀으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전남도는 11일 김규용 대변인 명의의 환영문

을 통해 “핵융합(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 사업이 나주시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 유치는 전남도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서 미래 첨단기술의 결정체인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에 선제적으로 준비해온 성과다.

전남도는 지난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태양 부지 공모 계획이 발표된 이후 전남 TF를 구성하고 나주 유치를 위해 모든 도정 역량을 집중했다.

유치계획서를 공식 제출한 이후 부지 현지 실사와 발표행사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1조2천억원 규모의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나주에 구축되면 2천여명의 국내외 석학들이 전남으로 유입되고, 2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와 1만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전남도는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연구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 한전 등 700여개 에너지 기업, 단 한 건의 자연재해도 없는 안전한 부지, 열렬한 시도민 지지까지 준비된 노력과 탁월성이 정부와 과학계에 확고한 믿음을 심어줬다”고 자

평했다.

또한 전남도는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나주에 들어서면 세계 최고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모이는 국제 과학도시, 과학기술과 산업혁신이 선순환하는 미래 첨단도시, 일자리를 찾아 청년 인재가 돌아오는 지방소멸위기 극복 선도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AI 산업의 폭발적 성장에는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이 필수라는 점에서 ‘AI 중심도시’를 표방한 전남도가 인공태양까지 유치함으로써 AI 산업 성공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투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남도는 앞으로 정부, 나주시, 켄텍과 손잡고 원팀으로서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차질없이 완

공되고 산업 생태계가 조속히 자리 잡도록 도정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전남지사가 총괄하고, 나주시장·전남도 경제부지사를 공동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도 구성해 대정부 창구를 단일화하고 연구시설 조기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김규용 대변인은 “인공태양을 유치한 전남은 에너지와 AI라는 미래 전략산업의 양대 축을 동시에 품고 전남·광주·전북 3개 시·도가 함께 첨단 과학기술과 에너지 신산업을 선도하는 ‘재생 에너지·인공태양·AI의 융합 혁신지대’로 우뚝 설 것”이라며 “에너지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성장시켜 호남이 진짜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가는 영광스러운 길을 시·도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광주 경제계 “에너지산업 중심지 도약 전환점”

상의·경총 “인공태양 나주 확정 환영”

광주지역 경제계가 1조2천억원 규모의 ‘인공태양 연구시설’ 조성 지역으로 나주가 최종 확정된 데 대해 11일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나주가 지난 수년간 준비해 온 연구 인프라와 입지 경쟁력, 주민 수용성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광주·전남이 미래 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광주상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연구 기반과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 집적도, 에너지밸리

산업 생태계, 에너지 국가산단 등 지역의 차별화된 여건이 향후 인공태양 기술 개발과 실증, 전문 인재 양성 과정에서 큰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주상의는 연구시설 유치로 10조원대 경제적 파급효과와 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에너지 신산업 기업 집적, 글로벌 연구 협력 확대 등 지역 경제 전반에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나주 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전체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광주상의는 “정부와 국회가 향후 예산 반영과 행정 절차 등 후속 과정 전반에서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연구 인프라

가 광주·전남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광주경영자총협회도 “전남도와 나주시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치밀하게 준비해 온 노력의 결실이자, 광주·전남이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 중심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광주경총은 “단순한 R&D 센터를 넘어 1조2천억원이 투입되는 과학 인프라가 들어섬으로써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에너지 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며 “대한민국이 미래 에너지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는 확실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재만 기자

통합교명 후보 ‘전라국립대’·‘전남국립연합대’

목포대·순천대 18일 최종 확정

국회의원 추천 ‘김대중대’ 제외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대학 통합을 추진 중인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의 통합 교명이 오는 18일 확정될 전망이다. 통합교명 후보는 ‘전라국립대학교’, ‘전남국립연합대학교’ 등 2개로 좁혀졌다.

11일 목포대·순천대에 따르면 양 대학 총장, 부총장, 직권 대표 등으로 구성된 대학통합공동추진위원회는 전날 제8차 회의를 열고 교명 후보와 선정 일정 등을 논의했다.

추진위는 최종 후보로 선정된 ‘전라국립대학교’와 ‘전남국립연합대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17일 두 대학 교수, 직원, 학생 등 구성원 투표를 하고 18일 최종 교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국회의원 10명이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안한 ‘국립 김대중대학교’는 통합 교명 최종 후보에서 제외됐다.

각 대학에 항의·반대하는 의견이 빚발친 데다, 추진위에서도 ‘지역 색채가 짙다’는 의견이 제기돼 통합 교명 후보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

례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명 결정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 대학 구성원들의 충분한 숙의와 자율적 판단이며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따뜻한 마음 나눠요” 11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따뜻한 마음을 나눠요’ 기부행사에서 북구청직장 어린이집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진 어묵과 봉어빵, 군고구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이날 판매된 수익금 8만8천원을 연말 지역돌봄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북구청에 전달했다. <광주 북구 제공>

강기정 시장, 출판기념회 연기

도서관 붕괴 사고 수습 총력

광주대표도서관 건설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강기정 광주시장이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출판기념회를 연기했다.

11일 강 시장 측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출판기념회를 잠정 연기했다.

강 시장은 출판기념회를 기점으로 내부 조직을 재편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정을 전

면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1시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건립 중인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재 구조물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4명이 매몰됐으며, 이 중 40대 남성 1명이 구조됐으나 사망했다.

현재까지 나머지 매몰자 가운데 1명의 위치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즉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인명 구조 작업과 사고 원인 조사 등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변은진 기자

◀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람받는 廣告인네”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렸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
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혼아
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
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
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
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062)222-1095, 1096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받아드립니다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1) 꼬마상가 2억7,000
유동로타리 6차선대로변 코너중심상업지 30평
2층건물 매수즉시 사용가능(1층 점포4칸)주차4대

2) 양산동 주거1층 대지110평 시세50%
평당160만원 바로 건축가능 매가1억7,600

3) 중흥동6거리 상업지 193평 단층상가
도로코너 평당900 총가 17억3,700만원

급히 구합니다

토지,건물 투자조건맞으면 바로 계약됩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CMYK